



큰 기쁨



량 철 수

영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오늘 있는 분단 모임에서 친한 동무인 경숙이와 함께 가창대활동에서 제일 모범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것입니다. 영미네 분단에서는 학교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기간에도 가창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북도 치고 나팔도 불면서 구호판을 들고 거리들을 누비며 행진하는것은 정말 신바람나는 일이었습니다.

영미는 경숙이와 함께 가창대의 맨 앞줄에 나란히 서서 노래도 함께 부르고 꽃다발도 함께 흔들곤 하였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영미는 가창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선창을 때곤 하였습니다.

《야, 너희들을 보니 새힘이 부쩍 솟는구나.》

《저 애들을 봐서래두 오늘계획을 200프로 넘쳐해야겠수다.》

거리로 지나가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영미네를 대견히 바라보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는 꼬마들도 손을 나풀나풀 흔들 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미네는 더욱 성수가 나서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뉘를 주는 태양의 성산

...

어머니들이 방직공장에서 함께 일하다나니 영미는 경숙이와 공장탁아소와 유치원에도 함께 다녔고 소학교 3학년이 된 오늘까지도 한번도 떨어져본적이 없었습니다. 가름한 얼굴에 눈이 작은 경숙이에 비하면 얼굴이 동실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영미인지라 서로 생김새와 성미가 달랐지만 집도 한아

빠트 같은 현관에 살면서 언제나 쌍둥이처럼 어울려 다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꾸려주신 학생가방용천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안고 생산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가고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친히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생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어머니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아이들의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질 좋은 가방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고 떠나가신 후부터는 그 말씀들을 기어이 관철하여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겠다고 노상 공장에 나가 살다싶이 하는 어머니들이였습니다.

기계공학연구사인 영미의 아버지는 늘 출장을 다니므로 집은 외할머니가 이따금씩 와서 돌봐주고있습니다.

200일전투가 시작되던 날 출근을 앞두고 어머니는 영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짠 학생가방용천과 시제품가방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니. 난 지금도 그날에 환히 웃으시던 자애로우신 원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구나.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선 오늘 원수님을 공장에 모시였던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겠는지는 너도 잘 알리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어려있었습니다.

영미는 머리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영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우리 영미도 200일전투에 참가한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어느때보다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더 잘하길 바란다.》

《예-》

영미는 그 어떤 자랑스러움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영미는 결심하였습니다. 자기도 혁신자인 어머니에게 지지 않게 학습에서나 조직생활에서 제일 모범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단모임때 가창대활동에서 제일 모범이라고 칭찬을 받았으니 어찌 사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영미는 기분이 좋을 때마다 하는 버릇대로 경숙이와 손바닥을 짝소리가 나게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어디서부터 튀어온것인지 경숙이가 숨을 할따져리며 영미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시작도 꼬리도 없이 《영미야, 너 소식 들었니?》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말이니?》

영미는 가뜩이나 큰 눈을 더 휘둥그래 뜨며 되물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엄마네들이 분기계획을 다 수행했다누나.》 경숙이가 숨을 돌리는듯 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영미의 눈가에도 기쁨의 미소가 확 피어났습니다.

(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다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더니 끝내...)

마음이 즐거워진 영미는 웃음어린 눈길로 경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숙아, 우리 오늘 저녁 엄마들이 오면 축하해줄 준비를 하자꾸나.》

영미의 말에 경숙이도 기뻐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가?》

《앤, 깊이 생각할게 있지? 집안청소도 해놓고 저녁밥도 우리 손으로 지어드려서 엄마들을 기쁘게 해주면 되는거지 뭐.》

말꼬리를 얼버무리는 경숙이를 바라보며 영미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지. 그런데 영미야, 너 오늘 계획한 수학문제 다 풀었니?》

《수학문제?...》

마치 무엇에 찢리우기라도 한듯 영미는 흠칫 놀라워했습니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영미네 분단에서는 이번 200일전투기간에 매일 수학 10문제씩 풀기로 결정했던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학과경연이 있겠는데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것 같아.》

경숙이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영미는 《걱정마. 그거야 잠깐이면 다하겠는데 뭐.》하고 그쯤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는 《아무래도 난 빨리 수 학문제부터 풀어야겠어.》하고는 온 길로 총총히 되돌아갔습니다.

경숙이가 돌아가자 영미는 바빠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밥공장에 달려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송편이며 깨떡도 바꾸어왔고 자기 손으로 닭알부침도 해놓았습니다. 방안청소는 물론이고 책상과 이불장을 비롯한 가구들도 알른알른하게 닦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돌아오길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영미는 문앞으로 쪼르르 달려가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집안이 별로 환해보이는구나. 저런, 떡이랑 닭알부침도 다 있구.》

방안으로 들어서던 어머니가 이미 차려져 있는 저녁상을 놀란 눈길로 바라보며 영미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영미는 대답대신 생글생글 웃어보이며 어머니의 손을 밥상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냈지요. 축하해요.》

《아니, 그럼?!... 야! 우리 영미가 정말 용구나. 이제는 엄마를 위할줄도 다 알고...》

어머니가 크고 눈섭 질은 눈가에 함박꽃같은 웃음을 짓고 대견한 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우리 영미가 엄마를 위해 지은 밥 맛 좀 보자꾸나.》하고나서 밥 한숟가락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밥도 아주 맛있게 지었구나.》

얼마후 어머니가 여전히 웃음띤 눈길로 영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니 영미는 마음이 더욱 즐거워났습니다.

《영미야, 너도 어서 함께 먹자꾸나.》

어머니가 영미에게 숟가락을 쥐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와 함께 하는 저녁 식사가 영미에게는 참 별맛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따라 떡을 더 맛있게 잡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영미는 자랑스레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분단모임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어떤 칭찬을 받았니?》

《가창대활동에서 경숙이와 내가 제일 모범이래요.》

《저런, 우리 영미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도 기뻐하며 영미를 꼭 껴안아주었

습니다.

영미는 오늘 어머니를 크게 기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즐거웠습니다.

며칠후 선생님은 분단동무들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다같이 공부도 하고 가창대활동도 하느라고 수고들이 많아요. 하지만 동무들의 가창대활동이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되고있다는걸 명심합시다.》

잘 알고있는것처럼 거의 모두가 방직공장에서 일하고있는 동무들의 어머니들과 누나, 언니들은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날에 주신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자고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훈으로 새겨지는 충정의 날과 날들로 빛내가고있답니다. 하여 분단에서는 그 높은 열의와 충정심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으로 오늘부터 오후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소년단반별로 방직공장을 견학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먼저 1소년단반 동무들이 가기로 하자요.》

《야!》

영미네 1소년단반 아이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영미는 사기가 올라 옆에 앉은 경숙이와 서로 손뼉을 째소리가 나게 마주쳤습니다. 물론 어린시절 공장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녔고 어머니를 만나야 할 일이 있을적마다 공장에 여러번 가보아 눈에 띄어 익은 곳이기도 하였지만 이처럼 견학이라는 재미나는 일로 가보게 되는것이 처음인 영미와 경숙이였습니다.

오후과외시간 소년단반 동무들과 함께 방직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영미는 문득 함께 걷는 경숙이에게 물었습니다.

《경숙아, 너 어머니에게 뭘 준비해가지고 가니?》

《?!...》

경숙이는 영문을 몰라 의아한 눈길로 영미를 말끄러미 쳐다만 보았습니다.

《난 우리가 그저 견학만 할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주자는거야.》

그제서야 리해가 된듯 경숙이는 웃어보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넌 뭘 준비했니?》

《노래를 준비했어. 우리 엄만 내 노래를 들으면 제일 기쁘고 힘이 난다고 했거던.》

영미의 대답에 경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 하지만 난 그보다도 우리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이 어머니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해.》

《?!...》

느닷없이 하는 경숙이의 말에 담겨져있는 의미를 음미해보는듯 영미는 큰 두눈을 울롱

히 뜨고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200일전투로 들끓는 어머니들의 일터를 견학하며 영미네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아안았습니다.

멋들어지게 현대화된 일터들에서 가락맞게 울려오는 기대들의 노래같은 동음소리며 어머니들의 숙련된 일솜씨, 필필이 쏟아져나오는 가방천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였습니다.

《야! 정말 멋진데!》

《저런 천으로 가방을 만들면 정말 멋있겠다야.》

《빨리 메어봤으면 좋겠네.》

아이들속에서는 연방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일터를 찾아온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작업반장인 영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품견본실로 이끌었습니다.

《자, 다들 보아라. 이 가방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차례질 가방들이란다.》

《히야, 이거 정말 썩한데!...》

아이들은 벌린 입을 다물줄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깔과 형태의 가방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가방들이 바로 지난 1월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 하나 보아주시고 친히 메어보기까지 하신 가방들이란다. 너희들은 가방문제에까지 관심해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단다.》

어머니가 영미와 경숙이네 모두의 마음어 깊이 새겨주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희들 오늘 학과경연이 있었다는데 모두 높은 점수들을 받았니?》

물음을 던진 어머니의 눈길이 영미에게로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어머니에게 몇몇한 대답을 줄수 없어 머뭇거렸습니다.

점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기간 학과실력에서 경숙이와 1, 2등을 다투던 영미는 이번 학과경연에서 5등을 했던것입니다.

《영미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고개를 떨군 영미를 보고 모든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섭섭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경숙이에게 묻는듯 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 전...》

경숙이가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영미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차마 자기의 자랑을 할수 없었던것이였습니다.

《경숙인 이번 경연에서 제일 높은 성적으로 1등을 했어요.》

한 애가 불쑥 나서며 경숙이대신 제 자랑 하듯 대답했습니다.

《원 저런, 우리 경숙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너의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일이 더 성수가 날게다.》

영미의 어머니가 자기 딸의 자랑이더라도 한듯 기뻐하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영민 분단에서 준 분공인가창대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다나니...》

이번에는 경숙이가 영미를 변명해나서며 말하였습니다.

경숙이의 말에 생각깊은 눈길로 모두를 바라보던 영미의 어머니가 이윽고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의 분공을 잘 수행하겠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알만 하다. 하지만 그것도 학생의 첫째가는 본분인 공부를 잘할 때라야 빛이 나는것이란다. 이걸 항상 명심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그 말이 어머니들에게는 제일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것도 말이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영미의 어머니가 다시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구 너희들 모두 생각해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민들레학습장이랑 이런 멋진 새 가방들을 안겨주시는데 공부를 잘해서 학습장갈피마다에, 책가방마다에 충정의 5점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은 영미와 경숙이를 비롯한 모든 애들의 가슴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영미는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푹푹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선 새로운 결심이 불쑥 솟구쳐올랐습니다. 영미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어머니와 모든 동무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잘 알았어요. 난 이담부턴 학습을 제일 첫자리에 놓고 공부를 더 잘해나가겠어요.》

《그리구 분공수행도 더 잘해나가자.》

경숙이가 영미의 말을 받아 자기도 한마디 하는 말이였습니다.

다른 애들도 정말 그래야 한다면 얼굴마다에 웃음을 빙그레 피워놓고 서로서로 수군수군 하였습니다.

영미와 경숙이의 말이 저희네들의 마음이기도 한 때문이였습니다.

바로 이때 방금전에 돌아본 학생가방용

천생산직장쪽에서 교대를 마친 여러명의 어머니들과 언니들이 서로 웃음어린 눈길로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가오고있었습니다.

그 얼굴들마다에는 오늘도 계획을 넘쳐수행한 기쁨들이 함뿍 어려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저기서 오면서 무슨 학생들 일가 했더니 우리 경숙이네 소년단반 애들이였구만요.》

어머니들의 맨앞에서 오고있던 경숙이 어머니가 반색을 했습니다.

경숙이도 반가워하며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오늘도 공부를 잘했니?》

경숙이 어머니의 물음이였습니다.

《경숙이 엄마, 기뻐하세요. 그 앤 오늘 있는 학과 경연에서 1등을 했대요.》

영미의 어머니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야! 경숙이가 정말 꽤나 옹쿠나.》

함께 온 어머니들과 언니들이 경숙

이를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들과 영미네들을 바라보며 경숙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자꾸나, 너희들은 공부를 잘해 모든 과목마다 5점만 새겨가는 최우등생이 되고 우린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학생가방용천생산에서 날마다 계획을 넘쳐수행하는 영예의 혁신자가 되자는걸...》

《야! 정말 좋은 약속이에요.》

영미는 짜락 소리가 나게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모두는 서로 밝은 웃음을 주고받는것으로 그 말에 호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영미는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것, 이것이 학생들의 첫째가는 본분이고 아버지, 어머니들의 제일 큰 기쁨이며 나아가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제일 큰 기쁨을 드리는데로 된다는것을 말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는 영미에게 저 하늘의 새들도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있었습니다.

